

전남 시장·군수 '체육관 경선' 없다

민주, 당원+주민여론조사만으로 광주 동·서·광산구 국민참여경선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체육관 경선이 배제된 채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1일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각각 열고 광주의 경우 시민여론조사와 당원직접 투표를, 전남의 경우 도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통해 기초단체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2차 공심위를 열고 중앙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 지역으로 선정한 남구를 제

외한 동구와 서구·광산구 등 3곳의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을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구청장 후보 경선 방식은 김재균·강기정 국회의원 등 2명의 지역위원장의 합의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참여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직접투표 결과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당원 선거인단 구성은 우대당원(2009년 6월 이전 입당 후 지난해 9월 이후 당비 체납이 없는 당원) 50%와 일반 당원 50%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도 이날 제 2차 회의를 열고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9개 지역의 국민참여경선 후보자는 여론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2~3인으로 압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각각 40%, 면접 및 실사 20%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경선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렇게 압축한 후보에 대해 당원과 주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뽑는 경선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 시민배심원제도 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무안군과 지역위원회가 시민배심원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여수·순천에 대해서는 경선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시민배심원제도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보성군의 경우도 지역위원회

가 주민 여론조사, 당원 직접투표 각각 50%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전남도당 공심위는 1차 회의에서 경선방식을 주민여론조사+당원 선거인단 투표 각각 50%씩을 반영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이날 2차 회의에서 100% 여론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체육관 경선이 당원 선거인단 매수 등 자칫 돈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조사로 방향을 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경선은 당원 전수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는 다음주에 다시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경선방식과 일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다 버리고 떠나다

'무소유' 법정스님 입적... "사리도 찾으려 하지 말라"

내일 송광사에서 다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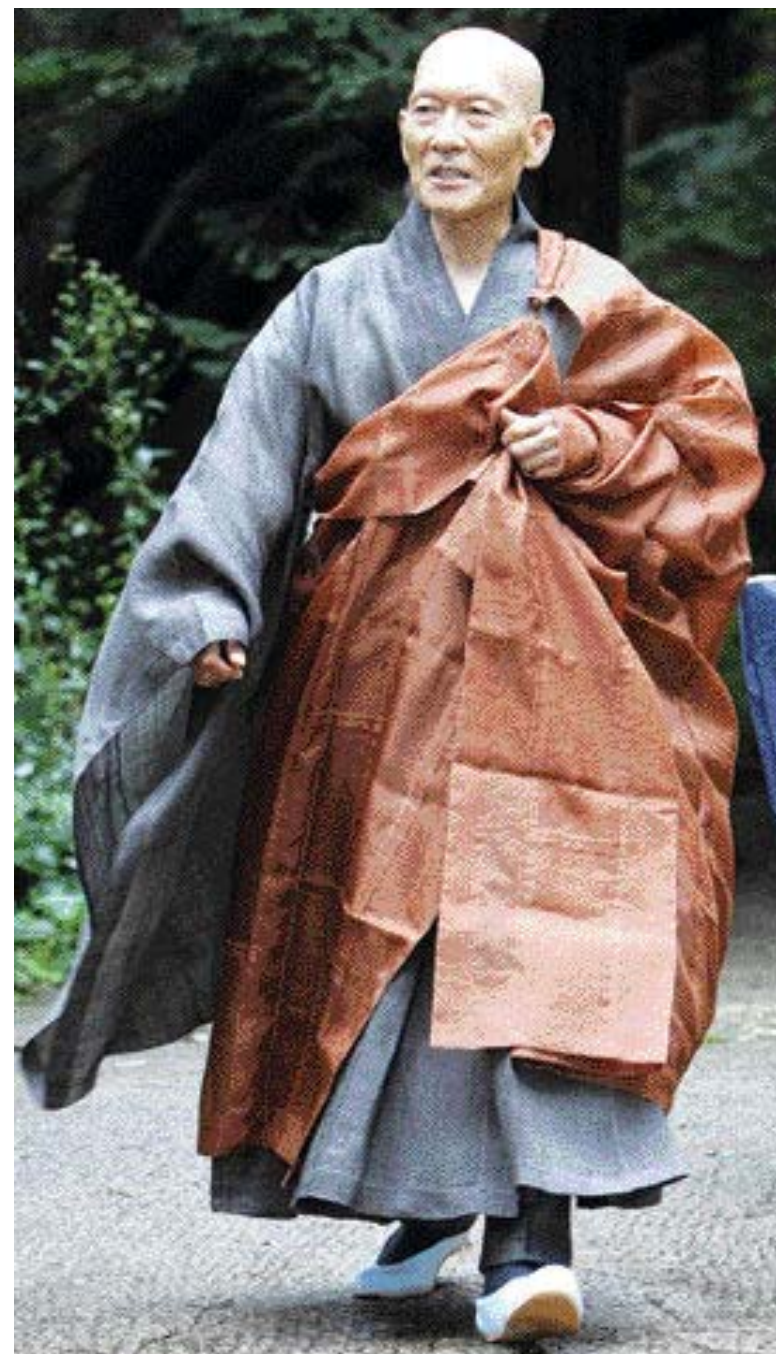
산문집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法頂·속명 박재철) 스님이 11일 오후 1시51분께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5세, 세수 78세. 해남 태생으로 송광사 불일암에서 17년간 수행했던 법정스님은 2007년부터 폐암으로 투병했으나 올 들어 병세가 악화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왔고, 입적 직전인 11일 낮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로 옮겼다. <관련기사 3·12면>

법정스님은 입적하기 전날 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사용해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정스님은 "평소에 번거롭고, 부질없으며, 많은 사람에게 수고만 끼치는 일체의 장례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도 말고,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해주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상좌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과 법정스님의 출가본사인 송광사, 법정스님이 창건한 길상사 등은 "일체의 장례의식을 거행하지 말라"는 법정스님의 당부에 따라 별다른 장례행사는 치르지 않고 13일 오전 11시 송광사에서 다비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법정스님의 유해는 다비식을 위해 12일 오후 5시 순천 송광사에 옮겨질 계획이다.

스님의 입적 소식에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정스님 측에 조전을 보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존경하는 법정 큰스님의 원전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살아생전 빈 몸 그대로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자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삶 자체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007년 8월 하안거 해제법회를 위해 극락전으로 향하는 법정스님/연합뉴스

이문세 붉은노을 '목포'

꿈결은 사랑의 노래가
다시 시작된다

3월 19일 - 2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광주일보사는 새 봄을 맞아 '이문세 붉은노을' 목포 공연을 개최합니다. 1996년부터 13년간 계속된 '이문세-목포회' 콘서트에 이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이문세의 붉은노을' 콘서트 공연을 기록하며 6만여 명이 넘는 유료관객을 동원한 역대 성공입니다. 지난 3월 열린 광주 공연 역시 레전드 공연 기록, 3천여명의 관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이문세는 "깊은 밤을 알아서", "관화문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들려주며 다양한 이벤트와 세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목포어퍼블릭 같은 것뿐 아닙니다.

- 일시: 2010년 3월 19일(금), 20일(토) 공연할 8시 / 토요일 7시
- 장소: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 주최: 광주일보
- 주관: (주)광명아트
-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 예매처: 티켓야후, 인터파크, 광주은행 전자권

나주혁신도시 '레미콘 대란'

납품가 인상 요구 공급 중단... 조성공사 차질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나주지역 레미콘업체들이 분리 배출을 통한 레미콘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며 계약을 미루거나 계약을 해놓고서도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몰스톱 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을 맡고 있는 부지(313만7천㎡)의 경우 3개 공구 중 2개 공구의 레미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요간선도로 지하에 우수(빗물)가 빠질 수 있도록 설치되는 암거 공사를 3개월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 부지(175만1천㎡) 중 2개 공구의 암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도 전면 중단됐다. 3-1공구(60만3천㎡)의 경우 지난해 건설사와 레미콘업체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공정률도 예상(65~70%)에 훨씬 못 미치는 22.4% 수준이다. 3-2공구(66만5천㎡)와 3-3공구(48만3천㎡)는 아예 레미콘사와의 계약 체결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등은 '레미콘 반입에 차질이 빚어져 국책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니 협의를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레미콘업체들에게 보냈지만 아직까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공공기관이 직접 레미콘을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와 계약하는 것보다 납품가가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토지주택공사 등은 "다음주 3개 시행사가 만나 레미콘 납품 거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경은 이날 조계원 총무원에 보낸 메시지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법정 스님의 원적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며 애도했다. 한편, 송광사의 말사인 무등산 증심사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는 스님의 입적소식을 접한 지역 불자들의 발걸음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익숙한 학교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 더 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